

“La Peste” 를 통해 본 Albert Camus의 不條理

黃 乙 文

L'absurde d'Albert Camus dans son roman “La Peste”

Hwang Earl-Moon

〈목 차〉

- | | |
|------------------|-------------------|
| 1. Résumé | 6. 개인적 熱情과 집단적 熱情 |
| 2. 서 언 | 7. 성인(聖人) Tarrou |
| 3. 부조리한 삶 | 8. 결 언 |
| 4. 神의 한계 | 9. Bibliographie |
| 5. 인간상호간의 집단적 유대 | |

Resumé

L'idée d'absurde d'Albert Camus a inspiré par “pessimisme” de Kierkegaard qui avait mis l'accent sur les conditions de l'univers, et la plupart de ses oeuvres ont illustré les aspect tragiques de la condition humaine. Camus realise affirmativement sa pensée d'absurde dans son roman “La Peste”. Les Orannais qui menaient la vie banale, quand la peste les a envahi, on organise la sanitaire contre le fléau avec sympathie, volonté, et l'amour entre eux. Cette communauté humaine, une autre sens, c'est une passion collective. L'essentiel de l'absurde de Camus est la révolte, et ici, il nous présente l'attitude humaine en refusant Dieu qui n'a rien jamais pour l'homme. Cette révolte et cette communauté humaine sont non seulement l'existence humaine qui on doit porter, mais aussi le problème essentiel de l'homme.

서 언

신에 의한 구원을 내걸고 인간의 영혼을 安住시키고 있던 서구의 기존질서는 제일차 세계대전을 통해 우선 표면상으로는 제국주의가 인간의 지성과 감성에 의해 붕괴되어감과 동시에 내면적 정신

세계에서도 신에 의한 윤리와 영원한 삶에 점차 회의와 반발이 胎動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1940년대에 와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식인들이 제 나름대로 철학관을 펼쳐 나가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상에서, 神도 희망도 理想도 잃어버리고 오로지 황량한 세계에 홀로 고독에 빠진 인간들이 근본적인 인간성을 상실하고 죽음이란 극한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Camus는 그의 다양한 문학 “Genre” 중에서 대표적 소설인 “L’Etranger”에서는 否定을, 가장 심세한 서술과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는 “La Peste”에서는 肯定을 그의 철학적 용어인 “부조리”로 전개시키고 있다.

여기서 Camus 사상의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이란 그가 주장하는바 대로 인생에 무의미한 세계, 인간에게 끊임없이 부닥쳐오는 惡과 억압등이 일종의 허무에서 시작되는 “Pessimisme”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방향없는 세대들이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生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반항”으로 표현되는 철학적 용어로 함축시켜 투쟁과 패배와 분열속에 휘말려 모든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Camus가 내세우는 부조리한 세계는 神이없는 세계지만 인간은 인간 자신이 바로 신이란 극단을 우회하여 인간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어야만 할 주역임을 강조함으로써 “실존”하는 인간상을 “반항”이란 태도를 통해 具現시키고 있으며, “La Peste”에서는 개인적 반항에서 오는 부정적 반항이 아니라 악과 억압, 폭력이란 비인간적 요소의 상징으로 “Peste”를 주제로 삼고 부단히 대항하는 인간의 의지와 결속, 기본 윤리를 가미하여 인간의 본성을 침해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집단적 열정으로 표현된 인간상호간의 유대관계를 통한 반항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부정적 부조리에서 긍정적 부조리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소설 “L’Etranger”나 희곡 “Caligula, Le Malentendu”는 그 공통적인 특색이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흐르는데 있다. 즉 “L’Etranger”에서는 étrange한 사회속에서 명석한 논리로 제3자의 삶을 서술하고, Caligula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笑劇처럼 묘사되어 그들 자신의 문제를 능가하지 못한 개인주의적 특색에서 生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지만 “La Peste”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信者거나 아니거나 간에 인류공동체적인 “악”에 대처하는 집단적 반항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으로 전환이 명백해진다. 여기서의 Peste란 病菌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람에게 따라서 전쟁이나 當代에 국제적 “테러”로 대두된 “나치즘”이거나 인간성의 내면적 갈등, 또는 죽음이란 극한상황이 될 수 있는데 실존주의 문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의 방법을 모색하는데서 시작하여 진정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존재의미 자각이란 과정에서 유발되는 기계적인 삶과 삶의 무대인 세계의 무의미, 불안, 억압, 내면적 갈등등을 탈피하고 인간성 근본에 의한 Moral로 본다면 Peste는 인간에 대한 모든 내면적 억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억압, 즉 Peste로 상징된 이 억압에 인간들이 상호간의 “사랑”으로 결속하여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삶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Camus가 전개시켜 나가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근본 취지이다.

1. 부조리한 삶

전 5장으로 구성된 La Peste의 제1장에서는 Oran시민들이 banal이란 무의식속에서 살고있는 과정과 배경을 서술하고 있는데 Camus의 말대로 잠자고 있는 의식이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섬세한 필치로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Oran 시민은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의식적인 생활 즉 먹고, 마시고, 잠담하고, 여자, 영화, 해수욕, 카아드놀이 등으로 존재에 대한 무관심과 무의식속에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을 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란 면에서는 L'Etranger의 세계와 다를바 없다.

“L'Etranger”의 2장 전체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의식이 즐고있는 과정을

J'ai pensé que c'était toujours un dimanche de tiré, que maman était maintenant enterrée, que j'allais reprendre mon travail et que, somme toute, il n'y avait rien de changé. (L'Etranger p. 41)

로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도 Meursault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서술한 것으로 인간의 은유적 표현인 Oran시민들과 다른점은 Meursault는 개인이고 Oran 시민은 복합된 단체란 뜻적 차이 일 따름이지 부조리한 삶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부조리한 “재앙”인 Peste에 포위되어 억압될 Oran시를

La cité elle-même, on doit l'avouer est laide. D'aspect tranquille, il faut quelque temps pour apercevoir ce qui la rend différente de tant d'autres villes commerçantes, sous toutes les latitudes. Comment faire imaginer, par exemple, une ville sans arbres et sans jardins où l'on ne rencontre ni battements d'ailes, ni froissements de feuilles, un lieu neutre pour tout dire? (La Peste p. 11)

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합리한 세계라는 “절망주의”의 주 대상이 되는 세계를 Oran시의 황량한 모습으로 축소시켜 표현하고 이어서

Une manière commode de faire connaissance d'une ville est de chercher comment on y travaille, comment on y aime et comment on y meurt. 중략……

Ce qu'il fallait souligner, c'est l'aspect banal de la ville et de vie, Mais on passe ses journées sans difficultés aussitôt qu'on a des habitudes. Du moment que notre ville favorise justement les habitudes, on peut dire que tout est pour le mieux. Sous cet angle, sans doute, la vie n'est pas très passionnante. (La Peste p. 13)

에서도 기계적인 삶의 양상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은 시간에 실려서 내일이란 장래에 어떻게 되리라는 막연한 희망과 낙관적인 Humanism으로 조화로운 세계에 安住하려는 태도에서 습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삶은 즐고있는 인간의 의식에서 비롯되고 그것은 실존하는 인간의 의식이 아니다.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 명확히 부조리한 세계를 인식하게 될때 비로소 인간은 실존하고 인

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으며, 부조리한 삶의 인식이 인간의 존엄성이 된다고 불적에 Peste란 억압을 목전에 둔 Oran 시민들의 정신적 공백상태를 제시함으로써 부조리한 삶의 탈피를 위한 명확한 인식을 希求하며

On comprendra ce qu'il peut y avoir d'inconfortable dans la mort, même moderne, lorsqu'elle survient ainsi dans un lieu sec. (La Peste p. 13)

으로 인생에 언제나 내습할 가능성이 있는 재앙(여기서의 재앙은 형이상학적인 것도 형이하학적인 것도 될 수 있다)에 대한 암시로 부조리한 삶의 무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제1장 말미까지 계속 “재앙”의 발생과정을 마치 실제처럼 점진적으로 묘사하여 무언가 불안울 자아내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면서 Oran 시민들의 “La vie banale”에 대해 “Tous nos contemporains sont ainsi”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contemporains은 이 작품이 쓰여진 1940년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란 “현대인”들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진정한 삶의 태도를 위한 Camus의 부조리 문학(Camus 자신은 자기의 사상을 실존주의라 칭하지 않고, 부조리에 대한 감성으로 부조리를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로서의 문학이라지만, 사상에서 기인된 일체의 문학태도가 인간실존에 있으므로 J.P. Sartre와 더불어 절망의 작가 부조리의 작가로 불리우더라도 20세기를 대표하는 실존주의 작가가 임에는 틀림없다)이 당대에서 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사조가 아니고 무한한 영원성을 향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Oran 시민들에 대조적인 인간으로서 시청발단 직원에 불과하고 외양도 하잘것 없으며 하는짓 또한 평범한 Joseph Grand이 등장한다. 야망에 의해 처신하지도 않고 우연히 맺어지게 된 아내와도 사랑한다는 말도, 편지도 한장 못내는 통에 이별하는 등, 얼핏 보아서는 “L'Etranger”의 Meursault와 다를 바없는 부조리한 인간이다. 그러나 의사 Rieux(뒤에 바로 Camus 자신의 변신임을 밝히는)가 Grand에 대한 인간적 感性으로

Mais la perspective d'une vie matérielle assurée par des moyens honnêtes, et, partant, la possibilité de se livrer sans remords à ses occupations favorites, lui souriait beaucoup. S'il avait accepté l'offre qui lui était faite, ce fut pour des raisons honorables et, si l'on peut dire, par fidélité à un idéal. (La Peste p. 47)

보는 것은 처지에 관계없이 자기의 직무에 성실함으로써 보장되는 물질적 생활의 보장과 기호에 부합하는 일에 아무후회없이 몰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상에 대한 충실성이며, 영예로운 이유가 된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직무에 성실성을 보인다면 삶의 성실성과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Dans un certain sens, on peut bien dire que sa vie était exemplaire. Il était de ces hommes, rare dans notre ville comme ailleurs, qui ont toujours le courage de leurs bons sentiments. (La Peste p. 48)

삶에 성실이란 인간실존의 기본 요건이 된다. 그렇다고 아무나 성실하기만하면 다 실존하는 것이 아

나라 인간근본의 양식에 의한 삶에 대한 성실이다.

그래서 회귀하다는 한정을 하고 부조리한 삶에 대조되는 성실한 삶을 본보기로 규정짓는데, Grand을 통해 성실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실이 “La Peste”에서 Camus가 구현코저하는 집단적 설정에 의한 “집단적 반항”의 단위적인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인 동시에 부조리한 삶을 탈피하는 최소한의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2. 神의限界

제I장의 말미에

Bernard Rieux regardait la dépêche officielle que le préfet lui avait tendue en disant: “Ils ont eu peur. “La dépêche portait: “Déclarez l'état de peste. Fermez la ville.”(La Peste p. 63)

로 이제껏 “괴질”로만 암시되어오던 peste가 표면에 들어나고, “La vie banale”의 상징이던 Oran시는 Peste에 억압당하여 市門 폐쇄라는 “한계상황”에 처하게 되어.

죽음이란 극한상황 앞에서 Oran 시민들은 신이란 전지전능한 힘을 갈구하며, 의지하려는 나약성을 들어낸다. 그래서

Or, vers la fin de ce mois, les autorités ecclésiastiques de notre ville décidèrent de lutter contre la peste par leurs propres moyens, en organisant une semaine de prières collectives, (La Peste p. 89)

집단기도회를 개최하여 peste란 악을 퇴치하러 들지만, Camus의 부조리는 “Dieu est mort”를 주장한 Nietzsche의 무신론적 실존과도 연관이 있다. 즉, Nietzsche는 인간이 조작한 신을 인간 이상으로 신봉하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정의하고 삶의 목적을 잃고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신에 의한 기성질서와 가치체계의 붕괴를 강조함으로써 Nihilisme을 주창하였는데 신이란 인간에 의한 產物을 강력히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Camus 사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평가되는 Kierkegaard는 본연의 자기상실 : 인간이 극한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유한성 및 허무성을 자각하였을 때 일어나는, 정신상태인 “인간의 자기가 신을 떠나 신을 상실한 상태”란 실존철학의 “Pessimisme”에 사상의 근원을 둔 Camus는 신이란 관념의 산물을 설정함으로써 인생이 언젠가는 저승에서라도 명확히 설명되리라는 희망을 갖는 종교적인 신앙심을 거부하는것이 신과 종교에 대한 그의 기본사상이므로 집단기도로 시도되는 악의 퇴치는 신을 거부하기 위한 전초적 예고에 불과한 것이다.

Peneloux 신부가

Jamais plus qu'aujourd'hui, au contraire, le père Paneloux n'avait senti le secours divin et l'espérance chrétienne qui étaient offerts à tous. Il espérait contre tout espoir que, malgré l'horreur de ces journées et les cris des agonisants, nos concitoyens adresseraient au ciel la seule parole qui fut chrétienne et qui était d'amour. Dieu ferait le reste. (La Peste p. 95)

유능한 설교기로 비유된 Paneloux 신부가 제1차 설교에서 Peste의 고통에 억눌린 Oran 시민들에게 Peste를 천벌로 돌린다. 그러면 Peste란 불의의 재앙도 그 존재나 발생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반항이 아니라忍從에 있다고 역설하는데, Paneloux 신부의 의도는 억압으로부터 인류의 해방이 아니라, 군중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갖는 계기로 삼으려한다. 기계적인 삶으로 부조리를 인식 못한 군중이나 성직자란 명분에서는 극한 상황앞에서 신에의 귀의가 당연할지 모르지만 부조리를 인식하는 실존의 측면에서 볼때 “Dieu ferait le reste”란 성립될 수 없는 기원이며 Oton판사 아들이 Peste로 인한 온갖 고통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Paneloux 신부가 “Mon Dieu! Sauvez cet enfant”을 나즈막히 호소해 봐도 결국 어린애를 죽음으로 이 끌어가는 것은 신의 無用을 내세워 그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이다.

의사 Rieux가 “Ah! celui-là! au moins, était innocent, vous le savez bien!”이라고 격분해서 외치는 말에 Paneloux 신부가 “Ce spectacle était insupportable”로 고백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을 인정한 것이지 신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진무구한 어린애의 죽음은 Peste를 천벌로 돌렸던 신부의 제1차 설교가 그 합리성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어, Paneloux 신부는 어린애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우주질서에 대한 평화로운 신앙심의 비합리성을 깨닫게됨에 따라 현실이란 구체성 앞에 자신의 추상적 관념이 무너져 설교 보다는 현실 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전대에 가입한다.

Rieux는 의사의 직무로 보전 대역할을 인간구원이라 주장하지만, Paneloux 신부는 성직자의 직무로 인류구원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Rieux와 함께 구체와 추상이란 관념이 “인간에”를 위한 공동목표를 위해 노력하다가 Paneloux 자신이 Peste에 감염되어도 “사제가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다”란 신앙심의 명분 때문에 끝내 치료받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천벌이라 설파하던 Peste의 희생물이 되고야마는 것을 Camus의 분신인 Rieux는 반항할 줄 모른다고 술회하는데, 여기서 반항의 의미는 타인의 고난을 통찰함으로써 사랑이 눈뜨게 되지만, 반항과 더불어 눈뜨게 된다. 인간은 바로 이 사랑이란 것을 명목으로 신에 맞서고, 거부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며, “순진무구한 어린애들도 죽는다 고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연이어 “그렇다면 신이 없는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란 의문이 제기되면,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의 삶을 철저히 그리고 최대한의 열정으로 죽음을 응시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반항의 근본적 의미라는 Camus의 논리에 도달하게 되므로 “삶”이란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인간을 떠나서는 아무뜻도 없다는 인간 실존에 관한 문제이지 결코 그 속에 신의 개재를 허용치 않으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Camus의 神이란 관념의 산물을 보는 태도는 그의 試論인 Le Mythe de Sisyphe에서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 즉, 무익하고 희망없는 일을 하는것 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다고 생각한 神들이 Sisyphe에게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다시 산꼭대기까지 굴러올려야만 하는 형벌을 내리게 되자, 끝없는 그 형벌을 수용하는 Sisyphe의 태도를

Les mythes sont fait pour que l'imagination les anime. Pour celui-ci, on voit seulement tout l'effort d'un corps tendu pour soulever l'enorme pierre, la rouler et aider à gravir une

penne cent fois recommencée; on voit les visage crispé, la joue collée contre la pierre, le secours d'une épaule qui reçoit la masse couverte de glaise, d'un pied qui la cale, la reprise à bout de bras, la sûreté tout humaine de deux mains pleines de terre. Tout au bout de ce long effort mesuré par l'espace sans ciel et le temps sans profondeur, le but est atteint. Sisyphe regarde alors la pierre dévaler en quelques instants vers ce monde inférieur d'où il faudra la remonter vers les sommets. (Le Mythe de Sisyphe, p. 163)

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神들의 형벌에 대한 인간의 반항이 아니라 끊임없는 형벌을 묵묵히 감수하는 인간의 의지, 즉 의존하지 않는 인간에 의한 의지를 Camus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 神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기 위하여 신이란 존재를 관념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며 공간없는 하늘, 길이 없는 시간으로 無益과 無望은 Sisyphe에게 加해진 형벌이라기 보다는 神이란 존재의 否定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Je laisse Sisyphe au bas de la montagne! On retrouve toujours son fardeau. Mais Sisyphe enseigne la fidélité supérieure qui nie les dieux et soulève les rochers. Lui aussi juge que tout est bien. Cet univers désormais sans maître ne lui paraît ni stérile ni futile. Chacun des grains de cette pierre, chaque éclat minéral de cette montagne pleine de nuit, à lui seul forme un monde. La lutte elle-même vers les sommets suffit à remplir un coeur d'homme. Il faut imaginer Sisyphe heureux. (Le Mythe de Sisyphe, p. 166)

로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의 형벌은 神을 부정함으로써 성립되는 인간의 자신에 대한 삶의 성실성이라는 주장으로 神의 한계를 규정짓고 있는데, 이러한 Camus의 사상이 La Peste에서도 소설 L'Etranger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具現되고 있다.

3. 인간상호간의 집단적 유대

이와같이 신에의한 구원이란 Camus의 부조리 사상에서 성립될 수 없는 虛望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인간이 신의 역할을 대행해야만 하므로 우상으로서 신이나 신화속의 신이 아니라 현실적인 신, 현존하는 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Camus의 부조리에 입각한 현존하는 신이라고는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성실한 의사 Rieux가 등장하게 된다. Rieux의 인간에 대한 사랑도 인간의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지 미래의 삶을 위한것은 아니므로 Paneloux와 Rieux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하지만, 자신의 직무에 대한 성실이 바로 인간을 위한 사랑이 되며, 여기서의 직무란 인간상호간의 영적교류에서 사랑과 동정과 각성에 수반되는 직무이행을 뜻한다. 인간이 처해있는 비참, 공동운명, 고난에 대한 거부와 그것으로 부터의 탈피를 향한 부단한 투쟁이 의사인 Rieux로서 반항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Rieux는 직업상 단순히 육신의 치료로만 일관하지 않고 육신이 병들지않은 Grand이나 Cottard도 찾아 보는 것은 그의 형이상학적 연민이 수반된 인간상호간의 인간애를 암시하고 있으므로 Peste가 의면적 재앙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인간정신에 기생할 수 있는 증오, 거짓, 오만 등과 같은 비인간적 요소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고, “순수한 사람만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Tarrou의 말에서 그러한 뜻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억압하는 “재앙”에 Rieux 개인의 의지로만 반항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Paneloux가 한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지 않고 집단기도를 시도 하였으므로 신을 거부하는 인간들도 마땅히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Tarrou에 의한 보건대 조직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Tarrou가 Alors, J'ai un plan d'organisation pour des formations sanitaires volontaires. Autorisez-moi à m'en occuper et laissons l'administration de côté. Du reste, elle est débordée. J'ai des amis un peu partout et ils feront le premier noyau. Et naturellement, j'y participerai. (La Peste p. 118)

에서 보건대가 결성되게 되지만, 이치를 떠나 內在하는 의미로는 개인적 반항이 아니라 “악”에 대한 집단적 유대를 통한 반항이고 인간상호간의 이해와 사랑이 잉태된 긍정적 반항이지 부정적 반항이 아니다. Rieux가 별다른 목적 의식없이 의사란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나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절규를 듣고난 뒤 부터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게 되었다는 연유를 알게된 Tarrou의 “Après tout?”란 질문에

전략...C'est une chose qu'un homme comme vous peut comprendre, n'est-ce pas, mais puisque l'ordre du monde est réglé par la mort, peut-être vaut-il mieux pour Dieu qu'on ne croie pas en lui et qu'on lutte de toutes ses forces contre la mort, sans lever les yeux vers ce ciel où il se tait. (La Peste p. 121)

로 Rieux는 자기의 인생관을 결론짓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Rieux는 허망을, 즉 부조리한 세계를 인식하게 되어 인간을 위해 아무의미 없는 하늘로 상징된 Dieu를 부정하고 “전력을 다하여 죽음과 싸워야 한다”는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집단적 반항이라 할 수 있는 보건대의 중요성을 추상적인 의미보다 현실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Peste란 억압으로 부터 해방은 인간 자신에 의한 것이지 신이 할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형이상학 철학정신에 입각한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실에 형이상학은 필요없기 때문이고, 현실에 입각하여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 자체가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인간을 억압하는 악의 퇴치를 위한 인간행동 규범을

Mais la conclusion était toujours ce qu'ils savaient: il fallait lutter de telle ou telle façon et ne pas se mettre à genoux. Toute la question était d'empêcher le plus d'homme possible de mourir et de connaître la séparation définitive. Il n'y avait pour cela qu'un seul moyen qui était de combattre la peste. Cette vérité n'était pas admirable, elle n'était que conséquente. (La Peste p. 126)

로 인간의 집단적 열정에서 유발되는 상호간의 유대관계로서 부단히 투쟁해가는 방법만이 당연한 귀결로 결정짓는 것은,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의지가 聖德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한다. 성덕이란 말 자체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덕행이 아니고 지고지순한 神만이 누릴 수

있는, 神聖에 의한 덕행인데, 인간이 그러한 성덕을 배운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Camus의 부조리에서는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결국 인간이 神만의 성덕을 대행할 수 있는 善德을 聖德으로 격상시켜야만 신의 不在란 논리가 성립되고, 또한 악덕도 행할 수 있는 인간에게 성심과 같은 善心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신의 부재란 상태에서 인류에게 부과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인간자신의 선심으로 결속된 상호간의 유대에 의한 Engagement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사상을 보전해 조직의 형태로 Camus가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상호간의 유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A minuit, quelquefois, dans le grand silence de la ville alors désertée, au moment de regagner son lit pour un sommeil trop court, le docteur tournait le bouton de son poste. Et des cofins du monde, à travers des milliers de kilomètres, des voix inconnues et fraternelles s'essayaient maladroitement à dire leur solidarité et la disaient, en effet, mais démontraient en même temps la terrible impuissance où se trouve tout homme de partager vraiment une douleur qu'il ne peut pas voir: "Oran! Oran!" En vain, l'appel traversait les mers, en vain Rieux se tenait en alerte, bientôt l'éloquence montait et accusait deux étrangers de Grand et de l'orateur. "Oran! Oran! Oui, Oran! Mais non" pensait le docteur, aimer ou mourir ensemble, il n'y a pas d'autre ressource. Ils sont loin. (La Peste. p. 130)

에서 폐쇄된 Oran이란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의 사랑에 의한 유대가 아니라 Oran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비록 어색하지만 연대감을 느낀다는 라디오 소리가 일단 時, 空을 초월한 전인류의 연대 의식은 긍정적이라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며, 같이 사랑하거나 같이 죽는걸 외에 다른 방책은 없다고 Rieux가 생각하는 것은 실행 즉, 참여없는 연대의식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유대관계를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40년대 西歐 지식인들의 현실참여에 대한 의식과 인식은 하되 실행으로 직접참여하지 않는 當代의 사회풍조를 질타한 듯 하지만 결국 Camus 자신이 진정한 의미로 engagement에 대한 희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론과 명분만 내세우는 웅변가와 성실히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수행에 전심하는 Grand과의 비교에서 행동적 engagement을 Camus가 希求한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 진다. 사실상 실천없는 이론이란 空論에 불과하고 실천에 의한 善德이 인간상호간의 사랑에 따르는 유대로 결속될때 비로소 聖德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Camus가 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개인적 열정과 집단적 열정

소설 L'Etranger에서는 Meursault의 개인적 반항과 삶에 대한 열정을 서술함으로써 개인적 열정이 유발할 수 있는 독단이나 부정적 반항의 요소를 긍정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Camus는 신문기자 Rambert를 등장시킨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잠시 취재차 Oran시에 들렀던 Rambert는 Peste로 인한 市門폐쇄조치로

일종의 구금상태가 된 상황에서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은 개인적 사랑이란 갈등을 비정상적 방법이라도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책을 통해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그에게 보전대에 가입하여 함께 Peste를 퇴치하자는 제안을 Tarrou가 하지만

...Vous êtes capable de mourir pour une idée, c'est visible à l'oeil nu. Eh bien moi, j'en ai assez des gens qui meurent pour une idée. Je ne crois pas à l'héroïsme, je sais que c'est facile et j'ai appris que c'était meurtrier, Ce qui m'intéresse, c'est qu'on vive et qu'on meure de ce qu'on aime. (La Peste p. 150)

로 거부하며 보전대 역할은 명분에 불과한 영웅주의적 행동이라 반박하고 비록 개인적이지만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진지한 태도이므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려는 태도는 부정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 행복, 사랑에 대한 염원은 누구도 막을수 없다는 개인적 熱情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열정은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한 倫理的 부조리에 직면하게 된다. 끝내 자신의 행복의는 일체 무관심하려는 Rambert에게 Rieux가

Mais, il faut cependant que je vous le dise: il ne s'agit pas d'héroïsme dans tout cela. Il s'agit d'honnêteté. C'est une idée qui peut faire rire, mais la seule façon de lutter contre la peste, c'est l'honnêteté

中略-Savez-vous que la femme de Rieux se trouve dans une maison de santé à quelques centaines de kilomètres d'ici? Rambert eut un geste de surprise, mais Tarrou était déjà parti. A la première heure le lendemain, Rambert téléphonait au docteur:--Accepteriez-vous que je travaille avec vous jusqu'à ce que j'aie trouvé le moyen de quitter la ville? (La Peste, p. 151)

성실성, 즉 인간 본연의 성실성을 강조하지만 관념에 의한 영웅주의를 배격하려는 Rambert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에 집착하는 Egoïsme을 비판하는 Camus의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는 Rambert가 Oran시로 부터 몇 백키로미터나 떨어진 한 요양소에 Rieux의 아내가 있다는 Tarrou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직무에 성실이 타인의 구원되는 희생적 봉사에서 Rieux의 행동과 성실성의 참 뜻을 이해하게되어, 막상 탈출이 가능해진 순간에 탈출을 거부하는 것은 소설의 구성 요소로 소극적인 감동과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할 수 없음을 Rambert가 느낀것이다.

이러한 Rambert 관념의 전환은 인간의 본성속에 잠재하고 있는 “고귀한 그 무엇” 즉 정의에서 비롯된 “인간에”의 숭고함과 개인적 열정에 기인하는 Egoïsme을 탈피하고, 개인적 열정을 집약한, 집단적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共同體的 유대를 Camus가 강조하기 위해 신문기자 Rambert를 등장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집단적 열정에 의한 인간상호간의 유대가 반드시 긍정적만은 아니고 부정적일 가능성도 Camus는 배제하지 않고있다. 즉

Rieux et ses amis découvrent alors à quel point ils étaient fatigués, En fait, les hommes des formations sanitaires n'arrivaient plus à digérer cette fatigue: 中略, ...Quand aux autres, absorbés dans leur travail jour et nuit, ils ne lisaient les journaux ni n'entendaient la radio.

Et si on leur annonçait un résultat, ils faisaient mine de s’y intéresser, mais ils l’accueillaient en fait avec cette indifférence distraite qu’on imagine aux combattants des grandes guerres, épuisés de travaux, appliques seulement à ne pas défailir dans leur devoir quotidien et n’espérant plus ni l’opération décisive, ni le jour de l’armistice. (La Peste. P. 173-174)

에서 보면, 자신이 어느정도 피곤한지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타인의 불행해소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성실성에서 발로되는 보전대로 구현된 집단적 열정이 절실히 요망되는 상황에서도 관심을 갖는 척만하면서 실제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 知識人들의 현실 참여 의식부족을 “바다건너 어색한 목소리가 연대감을 느낀다”는 前章과 마찬가지로 모순된 개인이나 집단이거나 간에 실행없는 상호유대 관계를 대등하게 제시함으로써, 不條理는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식에 따른 자기자신만의 삶만 추구하는 태도도 아니며, 무한한 人間愛에 바탕을 둔 인간 상호간의 유대뿐만 아니라 실현되는 집단적 열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Camus의 不條理가 같은 소설인 “L’Etranger”와는 달리 肯定的이라 규정지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Camus의 不條理思想이 否定에서 肯定으로 전환됨을 볼 수 있다.

5. 聖人 Tarrou

理性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나면, 인간이 신의 능력을 대항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인간에 의한 성덕, 개인적 열정을 超克한 집단적 열정의 반항, 인간 상호간의 유대로 집약되는 인간애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행하는 의지, 즉 인간의 의지인 것이다. 의사 Rieux의 행동은 의사로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타인을 위한 성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직업인으로서의 의무를 떠난, 자유상태에 있는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성덕의 필요성에서 Camus는 Tarrou란 의지에 찬 인간을 내세우고 그의 내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검사 아들인 그는 17살때 까지 순진한 관념속에 살다가, 어느날 아버지에 의한 사형 논고를 방청한 뒤 사형이란 가장 비열한 살인으로 간주하고, 집을 떠나 어느 정당에 가입하지만, 그 당의 행동수단이 목표에 어긋나는 “살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살인한다.”는 非理에 혐오감을 느끼고 좀더 정의로운 사회를 배우기 위해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투쟁을 벌이던 중 Oran시가 Peste에 휩싸인 것을 보고 보전대를 조직하여 대항할 결심을 한다는 Tarrou 내력의 의미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동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천하는 인간의 의지를 작가인 Camus가 Tarrou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과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Camus의 부조리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는 신이나 할 일이지 선량한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쉽다. 그러나 실천하는 의지는 어렵다. 고난받는 인간에게 연민의 정으로 구원의 의지를 실행하는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 즉 聖人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다. Rieux와 대화에서

-En somme, dit Tarrou avec simplicité, ce qui m’intéresse, c’est de savoir comment on devient un saint. -Mais vous ne croyez pas en Dieu. -Justement. Peut-on être un saint sans Dieu, c’est le seul problème concret que je connaisse aujourd’hui. (La Peste p.230)

Paneloux와는 정반대 인물인 Tarrou의 야망은 俗人에서 성인이 되는것이고, 따라서 그의 모든 행동규범은 종교와는 무관한 성덕이다. 신은 거부하면서도 성인이 되고싶다는 Tarrou의 갈망은 인간다움을 향한 의지의 실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회구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일종의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Tarrou의 강인한 인간 의지가 자신이 Peste에 걸린 상황에서 구현된다.

Tarrou luttait, immobile. Pas une seule fois, au cours de la nuit, il n'opposa l'agitation aux assauts du mal, combattant seulement de toute son épaisseur et de tout son silence. Mais pas une seule fois non plus il ne parla, avouant ainsi, à sa manière, que la distraction ne lui était plus possible. Rieux suivait seulement les phrases du combat aux yeux de son ami, tour à tour ouverts ou fermés, les paupières plus serrées contre le globe de l'oeil ou, au ramène sur le docteur et sa mère. Chaque fois que le docteur rencontrait ce regard, Tarrou souriait, dans un grand effort. (La Peste. p. 258)

그러나 이 神을 떠난 聖人도 Peste의 기세가 다소 꺾이고난 뒤 돌연히 Peste에 걸려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Camus가 제시하는 것은 “제앙에 희생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도 가차없이 “악”의 —여기서의 제앙은 인간내외에 존재할 수 있는 惡이나 인간을 건멸시키는 전쟁도 될 수 있다—祭物이 될수 있는 가능성과 “제앙”이 끝날 무렵까지도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풀이킬 수 없는 장래를 豫示함으로써 소설이란 허구를 통해 현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부조리를 인식못하고 고난에 빠진 인간들을 위한 동정, 연민, 인간애로 결속된 집단적 열정과 개인열정을 실천하는 의지를 모든 행동규범으로 삼았던 부조리의 영웅 Tarrou의 죽음은 “聖人”이란 몇몇 사람이 추구하는 희망에 불과하다는 懷疑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것이 終章인 제5장의 마지막 처리를

Ecoutant, en effet, les cris d'allégresse qui montaient de la ville, Rieux se souvenait que cette allégresse était toujours menacée. Car il savait ce que cette foule en joie ignorait, et qu' on peut lire n'en disparaît jamais, qu' il peut rester pendant des dizaines d'années endormi dans les meubles et le linge, qu' il attend patiemment dans les chambres, les caves, les malles, les mouchoirs et les paperasses, et que, peut-être, le jour viendrait ou, pour le malheur et l'enseignement des hommes, la peste réveillerait ses rats et les enverrait mourir dans une cité heureuse. (La peste p. 279)

Peste란 극한 상황에서 해방된 기쁨을 환호로 축하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Rieux가 “이 환희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운을 남긴 점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아름든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사실은 신에 의한 윤리도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인간자신에 의한 윤리관의 확립과 실천을 구현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에 의해 Camus가 창조한 부조리란 인간들 중에서 “Tarrou”만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堅持하고 있으므로 L'Etranger의 Meursault가 부정적 부조리의 영웅이라면, Tarrou는 긍정적 부조리의 영웅인 동시에 Camus가 그의 부조리 사상에서 추구하는 실존하는 인간이 상징적으로 要約된 “聖人”이기도 하다.

결 언

Camus의 부조리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反抗”으로 줄일 수 있다. 소설 La Peste보다 미리 출간된 작품속에 Meursault, Caligula, Martha를 등장시켜 반항을 전개하지만 개인에 의한 반항이 잘못 인식되어 본래의 철학적 의미를 상실하고 파괴적 요인을 함축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여 “인간 공동체”에 의한 반항을 Peste란 가상의 억압에 대항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반항을 구현하는 것이 Camus가 La Peste를 집필하게된 동기이며, 이러한 부정에서 긍정에 이르는 道程을 부조리 사상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La Peste에서는 “재앙”으로 혹은 “악”으로도 표현되는 Peste의 실체가 문제인데 Peste를 Hitler의 “나치즘”으로 보는이도 있으나 Peste가 출간된 1947년도는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이므로 Hitler의 침공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 구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작품 말미의 경고처럼 Peste가 형이상학적인 인간 내부의 재앙만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Peste가 Oran시에 만연한지 어언 40년이나 지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소설 La Peste가 하나의 허구로만 끝난것이 아니라란 점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Bibliographie

1. Albert Camus: La Peste, Folio, 1978.
2. Albert Camus: Le Mythe de Sisyphe, Gallimard, 1978.
3. Maurice Bruèzière: La Peste lire aujourd'hui, Hachette, 1972.
4. Jean-Claude Brisville: Camus, Gallimard, 1970.
5. Robert de Luppé: Camus Editions Universitaires, 1963.
6. P.-G. Castex et P. Surer: Manuel des études littéraires françaises, Hachette, 1973.

